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You have to expect things of yourself
before you do them.

-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

VOL.170 2021.07

Cover Story, THE QUEEN'S GAMEVIL, NS스튜디오 '권나경' 사우
Special,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는 '점자책 만들기' 봉사
Game Focus, 'MLB 퍼펙트 이닝 2021' 올★스타전이 돌아왔다!
Game Focus, 'OOTP GO' 글로벌 서비스 돌입 "이젠 손안에서 플레이 즐기세요!"
Marketing Story, 이번에는 삼각김밥이다! '컴프야 X 이마트24'의 유쾌한 만남
Special,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환경보호 캠페인 "위기의 해양동물을 지켜주세요!"
게임vs게임, 2인용 액션 어드벤처 'A Way Out' vs 'It Takes Two'
고전탐독, 딸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프린세스 메이커 3'
퇴근후에, 운동하면 오래 산다고? 운동에 진심인 '헬린이'의 일기



서머너즈워
백년전쟁





별이 되어라!

2021★07

Global Mobile Game Leader 'GAMEVIL-COM2US'

게임빌·컴투스 는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을 초창기부터 이끌어 온 게임사입니다. 우수한 개발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글로벌 모바일게임 리더로 도약했습니다.

양사는 '손 안의 즐거움'을 모토로 모바일게임 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놈', '붕어빵타이큰', '게임빌프로야구', '미니게임천국' 등 엄지족들을 열광 시킨 히트 브랜드는 물론 '서머너즈 워', '별이되어라!', '컴투스프로야구', '크리티 카: 천상의 기사단', '낙시의 신', 'MLB 퍼펙트 이닝'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력 돋 보이는 스테디셀러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는 세계인들이 즐기고 공감하는 게임문화를 조성해 '게임의 가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양사는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중국, 태국 등 10여 개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독자적인 모바일 통합 플랫폼 '하이브'에 기반한 방대한 유저 풀을 축적하여 게임으로 하나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게임빌·컴투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폰 안에서 펼쳐지는 행복한 게임 세상! 즐거운 게임 라이프를 출발합니다.

'GAMEVIL COM2US NEWS' 2021년 8월호에는 더욱 다양한 독자 분들의 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www. gamevilcom2us.com / gcnews](http://www.gamevilcom2us.com/gcnews)



CONTENTS



★ INSIDE GC

08 Cover Story

THE QUEEN'S GAMEVIL
NS스튜디오 권나경 사우

16 Special

Surprise!
사내식당 'Cooking'의 맛있는 변신

18 Special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는
'점자책 만들기' 봉사

22 Special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28 나도혼자산다

운동하면 오래 산다고?
운동에 진심인 '헬린이'의 일기



★ GC GAME

12 Game Focus

'MLB 퍼펙트 이닝 2021'
올★스타전이 돌아왔다!

14 Game Focus

'OOTP GO' 글로벌 서비스 돌입
'이젠 손안에서 플레이 즐기세요!'

15 Marketing Story

이번에는 삼각김밥이다!
'컴프야 X '이마트24'의 유쾌한 만남

21 Special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글로벌 환경 보호 캠페인
'위기의 해양동물들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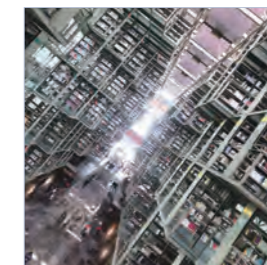
★ GAME

30 고전탐독

딸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프린세스 메이커 3'

35 게임vs게임

2인용 액션 어드벤처
'A Way Out' vs 'It Takes Two'



★ CULTURE

24 Special

서울과 경기도 시민을 위한
'일출신정'

26 Special

고대 문명의 나라
'멕시코'에서의 삶, 그리고 경험

32 퇴근후에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취미생활,
'볼링'을 소개합니다!

38 맛세상

레스토랑 대신 '내'스토랑 즐기
'감바스 알 아히요'

40 Monthly Item

야간 컴퓨터 사용의 도우미!
모니터 LED 램프 '크로스라이트'



★ FUN

42 달콤한 인생

사내공모전: '방구석 패셔니스타' 편

44 복면검왕

45 게임백과사전

방구석 축덕들 모여라!
'피파 온라인' 편

49 WE WIT

55 Quiz

GC 상식 퀴즈

발행인 송병준
편집인 유연상
기획·편집 게임빌컴투스뉴스 편집부
디자인 박선영
표지 사진 고대은

기자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
게임빌컴투스뉴스 2021년 7월호 / 통권 제170호(Since 2001. 11.)
발행일 발행일 2021년 7월 1일 / 2001년 11월 창간호 발행(월간, 비매출)
발행처 게임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A동
정보간행물 신고 일자 2018. 7. 5. 신고 번호 금천, 라00216

THE QUEEN'S GAMEVIL

NS스튜디오 권나경 사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S스튜디오 권나경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서른이 된 기념으로 표지 모델에 지원하셨다고 들었는데 계기가 궁금합니다.

서른을 맞이해 기념할 만한 제 삶의 에피소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직장인이 된 뒤로 너무 평범하게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일상에 특별함을 주고 싶었어요.

조경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인 게임 업계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릴 때는 게임을 만드는 일은 비범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선생님이셔서 집에는 늘 책만 가득했어요. 성인이 되고나서야 핸드폰도 처음 가져봤고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욱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에 대한 이미지만 접해보고 특별한 사람들만 게임을 하거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개발자 동아리에 들어간 뒤 "나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중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순간은요?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입주민과 발주처 사이에서 계속 조율하고 협의해야 했지만,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는데 말이죠(웃음). 이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해외 유저들의 니즈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낯설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뿌듯하거나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게임빌의 자랑도 같이해주세요!)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에 매출 반응이 바로 올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매출 추이를 믿지 못해서 30분에 한 번씩 확인하곤 했어요. 그렇게 반응이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해서 놀라고 뿌듯했고, 아직 미혼이지만 이게 바로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사랑받는 감정인가 싶더라고요.

NS스튜디오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나요? 맡고 계신 업무는요?

NBA 공식 라이선스를 적용한 모바일 농구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진감 넘치는 NBA 현장과 선수들을 구현한 리얼리티 스포츠 게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NBA 리그 성적에 따라 선수 스탯이 변동되고 시즌 스케줄에 맞춰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NS스튜디오에서 기획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퀸즈갬빗> 콘셉트로 촬영을 하셨는데 흑 체스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처음 체스를 접해본 건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체스나 장기 같은 고전 보드게임들이 교실에 늘 비치되어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규칙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후에 <퀸즈갬빗>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다시 체스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되었네요.





콘셉트 회의 때 드레스(?) 촬영을 이야기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안전모를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드레스를 펴려거리며 공주님(?) 같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안전모를 쓰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대학 시절 전공에 대한 추억도 새록새록 떠올릴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또, 안전모를 쓴 모습이 나름 귀여워(?) 보여서 만족스럽기도 했어요. 첫 촬영이 안전모였는데 저에게 익숙한 모습이라 빠르게 적응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지 촬영하신 걸 보니 다양한 활동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평소 즐기는 취미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래는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요즘은 수영장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대신 보드게임을 즐겨 하고 있어요. 직접 구매해서 하나 둘 모으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다만, 친구들이 보드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족끼리만 즐기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가 생일 선물로 피아노를 사주셨던 것이 계기가 되어 콩쿠르에서 상도 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나름 유서 깊은(?) 취미예요.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이런 촬영을 정말 처음 해보는 거라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점은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웃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 하하. 입만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너무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화목하게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제가 물놀이를 워낙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서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올해는 열심히 서핑에 도전해서 바다 위의 멋진 서퍼가 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곧 출시할 'NBA NOW 21'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때문에 사우분들도 사보 모델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글. 이명진 기자 / leemyoungjin@





'MLB 퍼펙트 이닝 2021' 대규모 업데이트 올스타전이 돌아왔다!

시즌 초의 개막전, 시즌을 마무리하는 포스트시즌과 함께 MLB 팬들의 가슴을 가장 설레게 하는 올스타전이 돌아왔다.(두둥!)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2021년의 메이저리그. 어떤 선수들이 새롭게 올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그중에 한국 선수들은 포함될 수 있을지 예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MLB 퍼펙트 이닝 2021'은 손안에서 메이저리그의 올스타전을 즐길 수 있는 업데이트를 선보이며 유저들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모바일에서 경험하는 완벽한 리얼리티 야구 게임 'MLB 퍼펙트 이닝 2021'! 올스타전 업데이트 외에도 신규 등급 추가와 다양한 이벤트들로 무장한 이번 업데이트를 살펴보자.

최고의 선수들과 불꽃 튀는 한 판 승부! '올스타팀 도전모드'

2018년을 최고의 성적으로 수놓은 모든 선수들과 뜨거운 승부를 할 수 있는 '올스타팀 도전모드'가 시작된다.

이번 '올스타팀 도전모드'는 2018년 AL팀과의 대결을 시작으로 2020년 NL 올스타팀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팀과의 승부를 통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유저들에게 재미와 실리를 모두 잡았다. 또한 2021년 올스타전 결과를 예측하여 맞히는 '올스타전 예측 이벤트'와 함께 한다

면 2021년 MLB 올스타전을 단순한 이벤트 경기가 아닌 불꽃 튀는 한 판의 승부로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된 '아너스 클럽' 오픈!

최강의 선수진으로 구성된 '아너스 클럽 선수 카드'가 출시된다.

최상위급 능력치와 화려한 디자인, 그리고 최강의 선수에 대한 소유욕을 자극하며 메이저리그 야구팬들의 심장을 흔들고 있다. 선수진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유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프라이م 레전드 카드' 100% 획득! '드래프트 메이커 이벤트' (7/8~29)

MLB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전설적인 선수들로 채워져 있는 '프라이미 레전드 카드'! 이 프라이미 레전드 카드를 참여한 것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꿈만 같은 이벤트가 진행된다. 다양한 일일 미션과 스페셜 미션을 달성하여 얻은 포인트로 프라이미 레전드 드래프트를 획득할 수 있을뿐더러 강화와 랭크 업까지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은 포인트는 SS~SSS 급 장비를 획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강화와 랭크 업을 끝내고 드래프트 카드를 열 때의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유저 커스텀 패키지 출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MLB 퍼펙트 이닝 2021'은 유저들에게 흥미로운 구매 요소를 제공한다. 기존의 패키지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저들을 위해 유저가 직접 패키지를 구성하여 구매를 할 수 있는 유저 커스텀 패키지가 그것이다. 그동안 정형화된 패키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망설였던 유저들은 자신만의 패키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패키지를 만들어 진정한 최고의 가성비를 찾아내는 것과 커스텀 한 패키지를 다른 유저들과 비교해 보는 것 둘 다 게임을 즐기는 색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다양한 편의 기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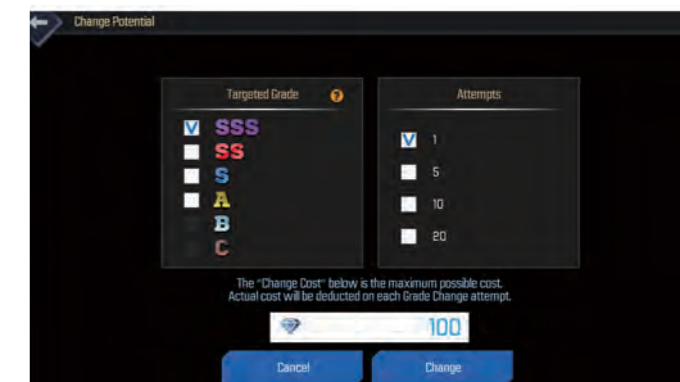
이 밖에 유저들에게 보다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 이적시장 선수 비교 기능이 개선되었다. 그동안 동일 선수 간의 비교만이 가능했던 것이 다른 선수를 검색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 캡슐 뽑기 진행 시, 연출을 스킵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보다 빠르게 캡슐을 이용할 수 있다.

◎ 잠재력 등급 변경 시, 원하는 목표 등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 스킬 변경 시, 변경 결과 화면에 스킬의 등급 아이콘이 노출된다.





컴투스, 'OOTP GO' 글로벌 서비스 돌입

'이젠 손안에서 플레이 즐기세요!'

'아웃 오브 더 파크 디벨롭먼트(Out of the Park Developments)'의 MLB 라이선스 야구 게임 '아웃 오브 더 파크 베이스볼(이하 OOTP)'이 모바일로 출시됐다.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유저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OOTP GO'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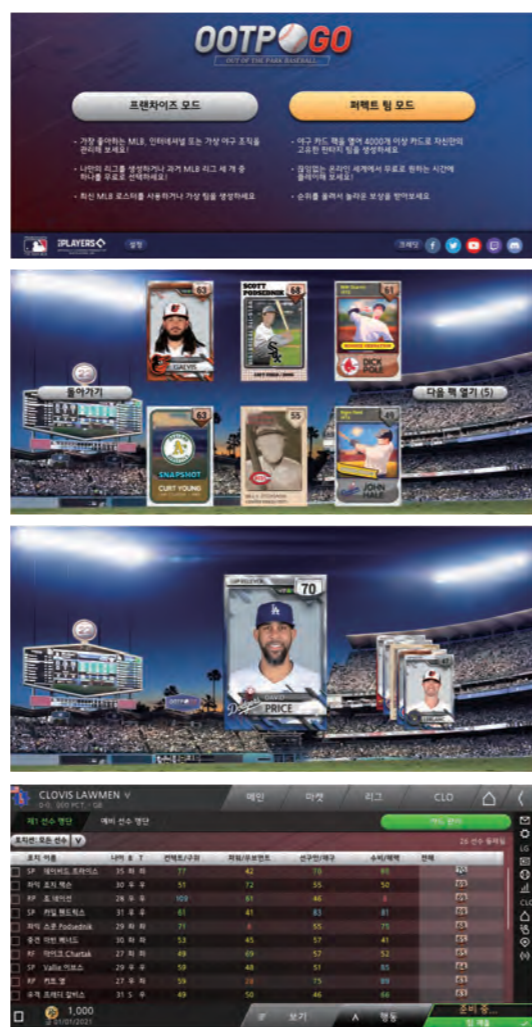
'OOTP'는 컴투스가 지난해 인수한 독일 게임사 '아웃 오브 더 파크 디벨롭먼트'가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 PC 온라인 기반의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실제 구단을 운영하는 듯한 리얼한 게임성으로 글로벌 유저와 메이저리그 팬들이 매년 새 시즌을 기다리는 독보적인 MLB 매니지먼트 게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OOTP GO'는 시리즈 22년 매니지먼트 게임 노하우를 가진 'OOTP 베이스볼'의 모든 것을 모바일에 그대로 담아낸 게 특징이다. 유저가 전략 전술 및 구단 재정을 총괄하는 감독과 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팀 관리 기능은 물론 PC버전에서 경험했던 'OOTP'만의 방대한 야구 데이터를 손안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 편의성까지 더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MLB리그의 대다수의 시즌들을 유저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창단한 SSG 등 10개 구단의 최신 상황을 반영한 KBO리그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경기 중계에 활용되는 자막은 물론 게임 내 등장하는 방대한 분량의 뉴스 데이터까지 모든 콘텐츠에서 한글화가 적용돼 한층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OOTP 베이스볼'은 미국의 유력 콘텐츠 분석 사이트인 '메타크리틱(Metacritic)'에서 '올해의 PC게임상'을 2회 수상하는 등 완성도 높은 명작 스포츠 게임 시리즈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컴투스가 인수한 이래 첫 선보인 신작 'OOTP22'는 출시 하루만에 북미를 비롯한 한국 시장에서 전체 장르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야구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국내 야구팬들도 PC 및 모바일에서 'OOTP 베이스볼'만의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구단 운영의 맛을 한글화 버전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모든 유저들의 즐거운 야구 생활을 기대해 본다.



이번에는 삼각김밥이다!

'컴프야' X '이마트24'의 유쾌한 만남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2021'(이하 '컴프야2021')이 이번엔 이마트24와 손잡았다.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프로야구 인기가 더해가는 가운데, 이마트24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층과 만나 재미와 혜택을 제공한 이번 행사에 대해 알아보자.

'컴프야2021'의 이색 마케팅

컴투스는 최근 대형마트들과의 제휴 프로모션을 통해 '컴투스프로야구', '승리를 기원한 닭', 등 기발하고 참신한 네이밍의 콜라보 제품들을 선보이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마트24'와 협업을 통해 편의점의 대표 인기 상품으로 손꼽히는 삼각김밥을 활용한 제휴 프

로모션을 진행했다. '투머치 토핑'이란 타이틀의 삼각김밥 2종을 출시하고, 판매중인 '더 빅' 삼각김밥 3종에도 '컴프야2021'의 인기 캐릭터 '수여니'를 디자인해 콜라보 시리즈로 선보였다.

삼각 김밥을 구매하면 '컴프야' 아이템이 따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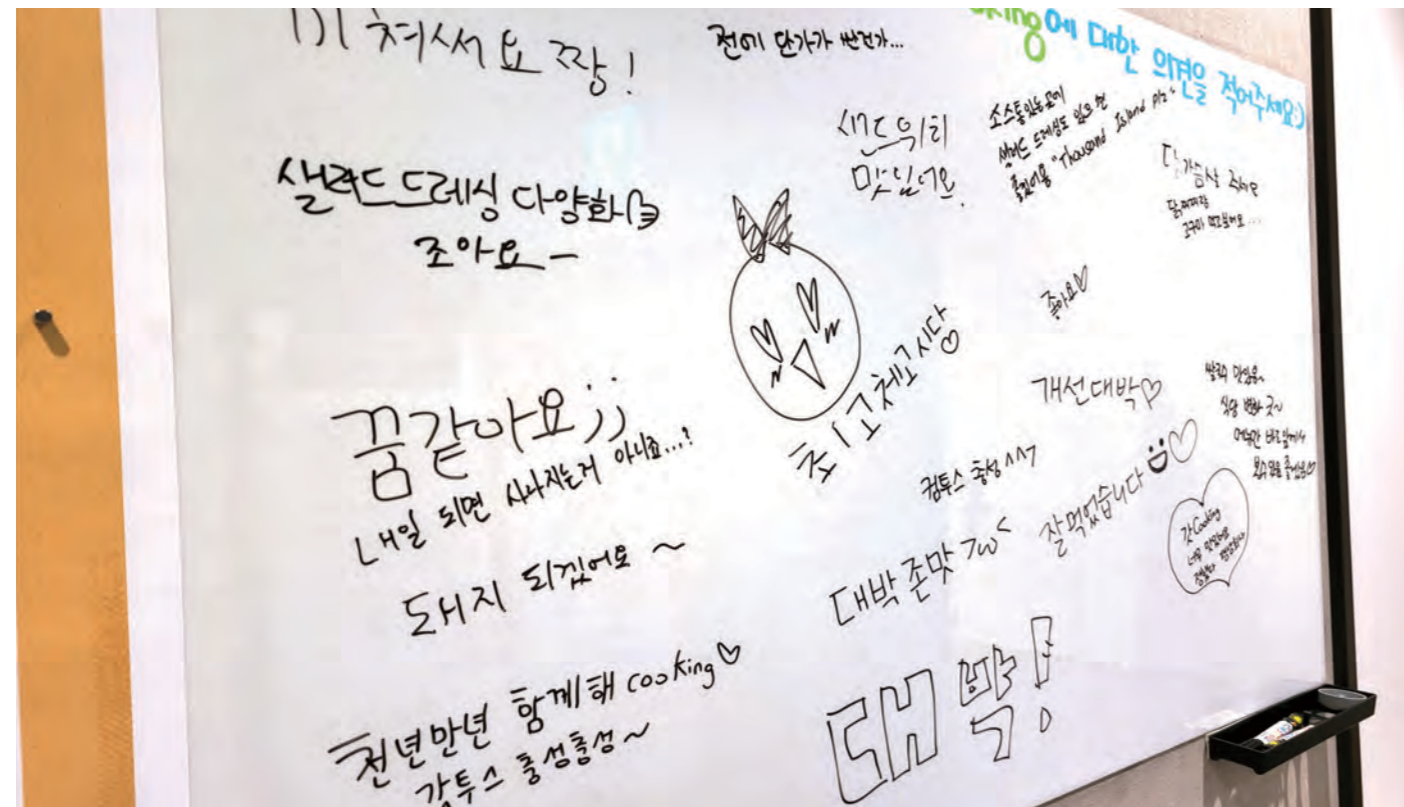
'컴프야2021' 삼각김밥 5종에는 게임에 유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랜덤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유저들은 '컴프야2021' 삼각김밥 스티커에 있는 스크레치 쿠폰을 긁어 나오는 번호를 '컴프야2021' 모바일 앱에 입력하면, 구단 선택팩(1만 원 상당), 고급 골드팩(3천 원 상당), 스타 100(게임에서 쓸 수 있는 머니, 1천 원 상당) 등의 아

이템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6월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 또 어떤 유쾌한 만남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크다.

컴프야의 밥심 지원 이벤트, 팬들의 열렬한 성원 13,000개 댓글 참여

이마트24와의 제휴 프로모션을 기념해 공식 카페 유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이벤트도 마련했다. 카페 내 게시물 댓글을 통해 이번 콜라보 제품 중 가장 기대되는 맛을 재치있게 댓글로 표현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0명의 유저에게 최대 1만 원의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약 13,000개의 댓글이 달리며 '컴프야2021'의 인기를 입증했다.





게임빌 · 컴투스 조직문화 LEVEL-UP 프로젝트 1탄!

사내 식당 'Cooking'의 맛있는 변신

Surprise!

2021년 6월 21일, 게임빌 · 컴투스인들의 식사 시간이 레벨-업 돼버렸다.

바로 게임빌 · 컴투스 '조직문화 LEVEL-UP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조직문화 LEVEL-UP 프로젝트'는 게임빌 · 컴투스인들의 조직 경험이 더욱 풍요롭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아침 차게 준비한 조직문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일상뿐 아니라 소통, 업무 등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의 레벨-업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그 첫 번째 여정, '식당 리뉴얼, 식사 경험의 LEVEL-UP'을 소개한다.

게킴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새로운 한 끼들

사계절 입맛 돋우는 '한식사계', 맛으로 만나는 세계 여행 '모던키친', 트렌디한 이색 맛집 '별미 공방'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보는 '맛'도 놓칠 수 없기에 철판, 나무, 유리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식기를 심본 활용해 식사 경험을 '레벨-업'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ooking'에 인력을 증원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게킴인들의 맛! 기대해 주길 바란다.

<p>한국인의 밥상 한식사계</p> <p>따끈, 고소한 숯불밥과 떡볶이, 철판에 나오는 든든한 한식 메뉴</p>	<p>세계 맛 기행 모던키친</p> <p>본토의 맛과 멋을 담아 One Plate에 집중한 글로벌식</p>	<p>트렌디한 이색 맛집 별미 공방</p> <p>해면기 도입으로 탱글탱글 촉촉한 즉석 면 요리</p>
--	---	--

건강을 위한 까다로운 픽! 'Picky Pickers'

건강식이 3가지 메뉴로 세분화됐다. 맞춤 간편식, 건강 도시락, 건강 샐러드 팩, 샌드위치로 구성되어 다이어트나 건강식을 선호하는 사우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샐러드는 싫지만 건강식은 먹고 싶었던 사우들은 이제 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으면 된다. 또한 분기마다 출시하는 다양한 신제품 품평회를 통해 메뉴의 새로움을 유지할 계획이다.



NEW 섹션!

★ 프로 혼밥러들을 위한 '1인 식사 공간'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를 적용한 1인 식사 공간이 새롭게 설치됐다. 프로 혼밥러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마치 내가 지금 별다방에 있는 건지 'Cooking'에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 난 김치볶음밥도 김치랑 먹으니깐! 'PLUS 코너'

나만의 특별한 취향이 있는 사우들을 위해 'PLUS 코너'가 새롭게 마련됐다.

'PLUS 코너'에는 다양한 입맛과 취향을 맞춰줄 글로벌 소스와 김치, 보리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도 사우들의 의견과 니즈를 취합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을 예정이다.



MINI INTERVIEW

조직문화실 '박풍정' 과장



게임빌 · 컴투스에 'Cooking'이라는 공간을 만든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동안 구성원분들의 피드백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뉴얼된 'Cooking'을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사우분들이 'Cooking'을 이용하는 시간을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닌 항상 기다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고민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마다 전력 질주로 급식실을 향해 달려가던 저를 떠올리면서요(웃음).

앞으로도 테마형 특식, 다양한 이벤트 등 식당의 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욱 맛있는 한 끼를 지으며 맛있는 건강을 책임질 식당의 진화를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담당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참!! 우리 모두 식사를 마치면 고고하는 곳을 어디죠? 바로 바로~ 게임빌 컴투스의 healing이실 텐데요~ 7월 중 공개될 게임빌 · 컴투스 'healing'의 'LEVEL-UP'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특별한 소통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는 '점자책 만들기' 봉사

게임빌·컴투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잠정 중단해 온 임직원 참여 정기 봉사활동을 재개했다. 아직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눌 수 있도록 이번에는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한 '점자책' 만들기

이번 활동은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습교구를 제작하는 것이다. 점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고,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뜻깊은 활동이다.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점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취입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선 경제적 여건상 점자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여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만들어 보았다.

게임빌·컴투스의 봉사활동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도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 인증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봉사활동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모집을 조기 마감한 것은 물론, 추가 수량을 확보하는데 즐거운 진땀을 빼기도 했다고 한다.

멀게만 느껴지던 점자를 처음으로 알아간 시간

기자는 GC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서 휴대용 점자인쇄기 볼로기로 점자 동화책을 만들어 보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 사실 살면서 '점자'라는 '문자'를 접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엘리베이터 버튼에 새겨져 있는 울룩볼룩한 돌기들을 보며, 점자를 읽는 것은 참 어렵겠다는, 그런 스쳐지나가는 생각 정도를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점자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잘 해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

간편한 점자 인쇄기 '볼로기'

소셜코어에서 개발한 '볼로기'는 기존 점자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식되던 '읽는 점자와 '쓰는 점자'의 차이점과 비싼 인쇄 비용을 극복하고, 작은 부피로 어디서나 간단하게 인쇄할 수 있게 했다.

사전 정보 없이 볼로기를 개봉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기 때문이다. 점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걱정이 무색하게도, 키트에는 기본 점자표와 점자학습 가이드북, 동화책 번역용지까지 들어 있어서 기본적인 점자를 쓰는 방법을 익히기에는 충분했다. 유튜브에도 점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볼로기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점자에는 쓰는 점자와 읽는 점자가 따로 있다. 기존의 점필/점자인쇄는 이 두 언어를 다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볼로기는 읽는 점자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직관적인 인쇄법이라고 한다. 또한 투명한 인쇄 스티커를 활용하여 책이나 엽서 등의 지류 뿐만 아니라 컵 같은 생활용품, 필기구, 가전기구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볼로기로 직접 점자를 인쇄해보다

동화책번역 키트에는 점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인쇄할 수 있도록 점자표 종이도 동봉되어 있다. 우선 볼로기의 상판을 열고 이 점자표대로 핀을 꽂아준다. 그리고 이 위에 스티커를 얹은 후 뚜껑을 덮고 클리퍼로 밀어주면, 압력에 의해 스티커가 찍혀 나온다. 오토도통한 점자 스티커는 뒷 용지를 떼어서 책에다가 차례로 붙여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책의 맨 뒷표지에는 번역자인 필자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착한 아이디어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다

기존의 인쇄법보다 훨씬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핀을 일일이 꽂아주는 것은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짧은 10문장 남짓 적혀 있는 어린이 동화책 한 권을 번역하는 데에도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시각장애인이 점자 언어를 배우는 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점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국내 시각장애인 중 단 5%만이 점자 언어를 구사하고 나머지는 문맹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소수자의 교육을 위한 기술인 볼로기에서 착한 아이디어의 아름다움도 느꼈다.

볼로기는 기자처럼 점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점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교구다. 인터넷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점자는 장애인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글. GC플레이어 한정연 / 그림. GC플레이어 전윤정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글로벌 환경 보호 캠페인

“위기의 해양 동물을 지켜주세요!”

지난 50년 동안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세계자연기금(WWF)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식지 파괴와 밀무역, 토지의 개척으로 인한 변화로 인해 전 세계 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으며,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100만 종에 달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류 사상 최초로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필리핀 해구 탐험에 성공했는데, 수심 1만m라는 엄청난 깊이에 이미 사람의 흔적이 가득했다. 플라스틱, 비닐봉지, 셔츠 등 각종 쓰레기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 탐사자들은 그곳을 ‘슈퍼마켓’ 같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글로벌 유저들과 컴투스도 환경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서머너즈 워’ 7주년을 기념해 컴투스와 전 세계 유저들이 합심한 이번 캠페인은, 공동 미션 이벤트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게임 안팎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전개될 예정이다.

‘컴투스X환경재단 선정 해양 위기 동물 7종’

컴투스는 환경재단과 함께 멸종 위기에 빠진 해양 동물 7종을 선정하고

바다 속 생물들에게 깨끗한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선정된 해양 위기 동물은 ‘푸른바다거북’, ‘고래상어’, ‘큰양놀래기’, ‘만타가오리’, ‘이라와디돌고래’, ‘해마’, ‘듀공’ 총 7종이다. 플라스틱·일회용품 및 폐그물·폐통발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해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세계 멸종 위기 및 취약종이다.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 하는 공동 미션 이벤트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공동 미션 이벤트는 게임 ‘서머너즈 워’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6월 21일부터 매일 시나리오, 카이로스 던전, 아레나, 길드, 이계 레이드 등 주어진 각 전투 콘텐츠 플레이 미션을 완료하고 전 세계 유저들이 함께 사랑의 진주 5천만 개를 모아 공동 목표를 달성하면, 컴투스가 조성한 기부금 5천만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해 위기에 빠진 해양 동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전체 누적된 사랑의 진주가 일정 개수에 도달하면 보상이 주어지며 각 유저가 개별 획득한 사랑의 진주 개수에 따라서도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제공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호받게 될 7종의 위기 해양 동물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이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게임빌·컴투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얼마나 될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일 년 동안 약 480여 건으로 6월(83건)과 7월(76건)에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놀라게도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였다.

최근 도심에서 차 운행 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를 시행한 지 1개월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7.7% 줄어들었다. 하지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공식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슬로건을 널리 알리는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게임빌·컴투스 또한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이와 더불어 아동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돕고자 지역

내 아동센터에 교통안전 물품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빌·컴투스는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구호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짐을 전했다.

이 슬로건은 지난 2020년 7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뽑힌 응모작으로 횡단 시에 어린이는 잠시 멈추고 좌우를 살펴보고 건너는 방어 보행 습관을 기르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고 주위를 살핀 뒤 주행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만들자는 뜻이 담겨있다.

더불어 게임빌·컴투스는 '투명우산', '반사경'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물품 1,000개를 사단법인 글로벌쉐어에 기부했으며, 해당 물품은 금천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27개소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임직원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비롯해 글로벌 유저들과 함께하는 게임 연계 사회공헌 이벤트 통해 소외 지역 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HELPFUL TIPS

서울과 경기도 시민을 위한 '알쓸신정'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정보

정보의 홍수 시대다. 참 많은 정보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왔다가 스쳐 지나간다. 개중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보증하는 알짜 정보들은 사주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약 130만 이라고 한다. 서울의 전체 가구 389.6만 중 약 33%다. 그리고 그중에 20대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려 연평균 약 8%다. 평균 연령층이 젊은 계임발-컴투스 사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본다.

'지켜줘, 홈즈!'는 6월 1일부터 서울시 18개 자치구가 지원사업 관련 신청을 받아 약 1,500곳을 지원한다. 17개 구에서 상반기 지원이 이뤄지는 여성 1인가구 지원 물품에는 도어락,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 있다. 해당 지원은 여성 1인 가구 외에도 미혼모, 모자가구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 여부를 알아보고 안전한 집생활을 하셨으면 한다.

다만 상반기 사업에서는 중로, 성동, 도봉, 은평, 구로, 영등포, 강남, 송파구는 제외되었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 절차, 지원 물품 등은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 고양이, 거북이, 기니피그 등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과거에는 이러한 동물들을 재산으로 봤지만 이제는 인류의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기자가 알기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서울시가 기초적인 반려동물 돌봄부터 입양가정 교육, 사회화 및 예절, 행동교정 교육, 생명존중 명사특강까지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맞춤형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반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행동 언어 이해 및 올바른 관계 형성, 건강관리, 영양 관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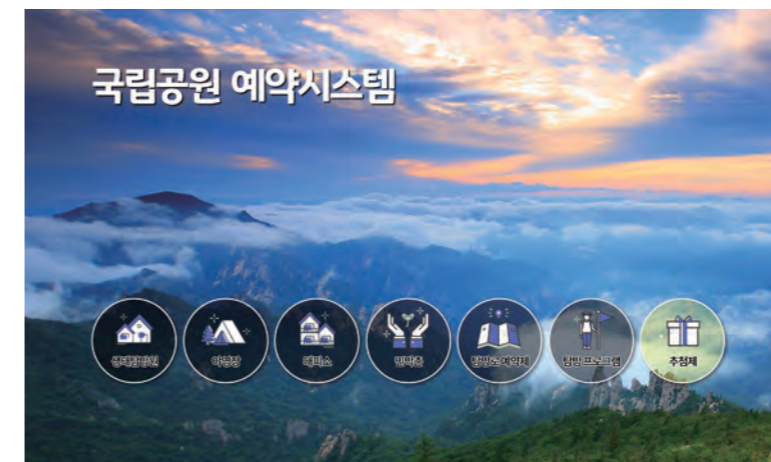
특별한 제한 없이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온라인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업 '배달특급' ▶

비대면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장 큰 수요는 배달일 것이다. 가구 인원과 관계없이 건 국민이 배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달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소비자들의 별첨 테러, 올라가는 수수료, 일회용 용기로 인한 환경문제 등 이전에는 없었던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배달 서비스다. 최근 평택과 안양시에 이어서 6월 14일부터는 용인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사에 의하면 6월 말에는 광명과 안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중 총 28개 지자체에서 선보인다고 한다. 현재 본 기사 작성 시점인 14일 기준으로는 도내 16개 지자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배달특급이 다른 배달 서비스들보다 월등히 빨리 온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에 대한 혜택이나 소비자 혜택에 있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와 지역 화폐 할인, 지역 서비스 개시 이벤트 등의 이점이 있으니 동네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많은 사주가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기를 바란다.



국립공원 통합 예약 서비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집 안에 갇혀 있는 사주들에게 좋은 정보다. 답답한 집을 벗어나 힐링을 떠나고 싶다면 국립공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국립공원 예약 관련 서비스는 국립공원 이용 시 탐방로, 탐방 프로그램, 야영장 등을 정부24에서 손쉽게 예약하는 민원 서비스다. 건전한 탐방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공원의 자원, 역사 문화자원, 경관자원 등에 대한 해설 안내 프로그램도 예약할 수 있다.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산과 바다에 위치한 많은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공원마다 이용 가능한 유형이 다르므로 유형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예약하면 된다.

* 예약부도시 1개월~3개월의 이용 제한이 있으니 진짜로, 꼭 가고 싶은 곳으로 예약하자.





고대 문명의 나라 '멕시코'에서의 삶, 그리고 경험

기자는 멕시코에서 약 5년간 생활했었고, 그 기간 중 여행 가이드로 일했던 적이 있다. 그 실제의 삶과 여행 가이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멕시코를 소개한다.

멕시코는 어떤 나라인가?



★ 지리적으로 북미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는 중남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연적/지리적으로 북미에 속한다. NAFTA라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 무역 협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인구는 약 1억 3천만 정도. 면적은 남한의 약 20배 정도 된다.

멕시코 간략 정보

언어 : 스페인어
인구 : 약 1억 3,026만 2,220명 / 세계 10위 (2021년 통계청 기준)
면적 : 1억 9,643만 7,500ha / 세계 13위 (남한의 약 20배)



★ 멕시코는 사막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멕시코가 허허벌판의 사막지대라고 생각한다. 그건 아마도 미국 영화, 드라마, 뉴스 보도에서 종종 보이는 선인장과 판초가 강하게 각인되어서인듯하다. 기자도 처음 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알고 보면 멕시코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복 받은 나라로, 물과 숲을 아우르고 있다. 한동안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꼽혔던 '칸쿰'도 멕시코에 있다.

★ 환상적인 자연환경

멕시코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아 하늘이 뽕 뚝러 광활한 천공이 머리 위로 펼쳐진다. 그와 함께 푸르른 녹음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자연 풍경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통상적으로 매체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와 느낌을 주는 나라가 멕시코다.



★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안전, 그래서 멕시코 치안은 안전한가?

멕시코 하면 마약과 카르텔로 인해 치안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 무서운 나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자는 가이드를 할 때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가지 말라는 곳 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게 더 무서우려나? 머쓱)

왜 멕시코에 가봐야 하는가?

세계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곳이 멕시코라고 하면 믿겠는가? '피라미드' 하면 일반적으로 이집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실 멕시코에도 엄청 많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 역시 멕시코에 있다. 잊힌 채로 방치되어 산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성당이 세워졌지만 그 또한 멕시코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이다.



★ 다양한 문명의 발생지

멕시코 동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인디오 문명 마야, 멕시코 중앙 고원에 자리 잡아서 번성한 문명 아즈텍, 아즈텍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톨텍 문명, 태양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떼오티우아칸 문명, 메소 아메리카 최초의 문명 올멕까지. 그 문명들이 남겨둔 유산을 확인할 수 있다.



★ 식도락의 천국

식도락을 즐기는 이들에게도 천국인 나라다. 멕시코 주식인 '따꼬', 옥수수 반죽으로 만든 '토르띠야'에 치즈를 넣어 만든 '깨사디아', 옥수수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고기를 넣고 쪄낸 '따말' 등 전통적인 멕시코 음식부터 풍부한 과일과 고기를.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적은 돈으로 풍부한 맛을 느껴볼 수 있다. 게다가 멕시코 음식들이 묘하게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편. 한국에서 멕시코 음식점들을 찾아다녀봤지만 역시 본토의 맛은 따라갈 수 없었다.



★ 세계 3대 성모마리아 발현지

포르투갈의 '파티마', 프랑스의 '루르드'에 이은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 성당'. 이 성당은 교황청에서 인정한 세계 3대 성모 마리아 발현지 중 가장 먼저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500년 된 성화가 보관되어 있어 더욱 특별하다. 카톨릭 신자들에게 성지 순례지로도 유명하다. 과달루페 외에도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교황이 극찬을 하고 갔다는 성당도 있다.



★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나열한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멕시코를 가봐야 할 이유는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이드를 하며 만났던 자유여행객들은 멕시코를 비롯하여 중남미를 다 돌아봤지만 열에 여덟 명은 멕시코가 제일이었다고 말한다. 멕시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회하기도 했다. 그만큼 보고 경험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다.

코로나 인해 하늘길이 막히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며 다시 하늘길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조만간 해외여행이 재개되는 날이 오면 쌓아 두었던 휴가를 왕창 사용하여 멕시코 여행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운동하면 오래 산다고? ★

운동에 진심인 '헬린이'의 일기

컴퓨터 앞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친구들이 익숙할 것이다. 장시간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거북목', 턱을 앞으로 내밀어 생긴다는 '일자목',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릿한 '허리디스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스트레칭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다. 스트레칭과 퇴근 중 하나를 택하라면 100명 중 99명은 못 참고 퇴근해 버리지 않을까?

★ 홈트란?



홈트는 홈트레이닝의 줄임말로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도 이 홈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헬스장이나 운동 관련 시설에 가기가 꺼려지기에 나 홀로 운동할 수 있는 홈트가 앞으로도 대세로 자리 잡을 듯하다.

시대적인 환경요인 외에도 홈트는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헬스장 같은 으리으리한 기구들을 들여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덩벨 정도만 가져다 놓는 사람도 있다. 사실 기자도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끄러울 정도로 간소하게 기구를 들여놓았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가장 큰 심경의 변화는 '집에 대한 욕구'다. (운동기구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졌다...)

바쁜 일상에 헬스장 갈 시간도, 용기도 없는 분들이 체형 관리나 근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따라 해 보도록 하자.

★ 뭘 보고 따라 해야 할까?



★ 손쉬운 유튜브 따라 하기(?)

기자의 유일한 친구 유튜브에는 수많은 운동법 영상이 있다. 그렇지만 초보자가 하기에 제일 신나고 목적의식도 있는 운동은 타바타가 아닐까?

유튜브에 '타바타'를 검색하면 집에서 할 만한 운동들이 매우 많이 나온다. 홈트라고 하면 혹 중간 소음으로 인해 아랫집에 민폐를 끼칠까 봐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타바타는 인터벌 트레이닝의 일종으로 맨몸 운동으로 구성된 20초의

고강도 전신운동 후 10초 동안 휴식하는 사이클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것이다. 맨몸 스쿼트나 버피 테스트, 플랭크 등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타바타는 4분 만에 8회를 해야 하므로 너무 빠르다고 느낄 수 있다. 헬린이인 기자도 실제로 따라 해 보고 느꼈다. '이거 너무 빠르는데?'

너무 빠르다면 배속을 줄여서 0.75배로 해보자! 아니면 따라 하기 더 쉬운 타바타를 찾아도 좋겠다. 그래도 다양한 동작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어서 맨몸 운동으로 하기엔 딱 좋은 듯하다. 씩나는 노래가 나오는 건 덤이지만 너무 흥을 내진 말자. 타바타가 중간 소음에 감점을 가지고 있지만 흥겨운 노랫소리에 아랫집에서 올라올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올블랑TV'의 타바타를 좋아하지만, 힘들거나 어렵다면 '땅꾸부부'를 추천해본다!

★ 무슨 운동부터 해야 할까?



★ 확장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는 자세 ★ 스트레칭 자세를 취하고 있는 기자

따라 할 채널을 선택하고 기자 같은 헬린이도 할 수 있는 홈트를 찾아보았다. 우선 맨몸 스트레칭이다.

유튜브 채널 '땅꾸부부'에서 다양한 스트레칭을 따라 해 보았다. 그냥 하면 심심하니깐 집에서 영상을 보며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은 것 같다. TV가 없는 사람도 휴대전화나 패드, 혹은 모니터라도 있지 않을까? 기자는 TV가 없어서 모니터를 겸사겸사 다용도 만능으로 쓰고 있다. 물론 운동은 집중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집중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기억나는가? 신체검사 날 유연성을 측정하는 이 자세는 통칭 '허리 숙여 밀기(?)'다. 과거 이 자세에서 측정 도구를 무려 32cm나 밀어내며 교내 유연성 1위를 했던 기자이지만 야속한 세월을 이길 수가 없나 보다. 햄스트링이 거세게 울부짖는다.



★ 스트레칭을 하다 넘어지는 모습. 쉽고 방심하며 운동하면 이렇게 된다. 집중해서 운동하자!

이번에는 도구를 이용한 스트레칭이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에 있어서 폼롤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폼롤러는 체형과 유연성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다리 살을 빼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식단이나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폼롤러를 이용하면 다리 근육 이완에 직빵이다. 하지만 기자는 불행하게도 폼롤러가 없어서 대용품으로 페트병을 이용해 보았다.

본래 폼롤러도 과거 통나무를 이용하던 모습에서 등장한 운동 도구라고 하니 현대에 어울리게 페트병으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최소한 기자는



★ 폼롤러 대신 페트병을 활용하는 모습

그렇게 믿는다. 물론 병을 굴릴 때마다 '드드득'하는 플라스틱 소리가 '아주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쓸만한 롤러(?)인 것 같다!



★ 보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복근 운동

이번에는 기자가 운동할 때마다의 문점을 느끼는 복근 운동이다. 식스팩은 왜 있는 걸까? 거기에 빨래할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유산소 다음으로 싫어하는 운동, 복근 운동이다. 하지만 복근 운동을 통해 내장지방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여러분도 필수적으로 따라 하자.

★ 마치며...



★ 다음 편 맛보기 위한 스포일러 도구들

기자가 지금까지 운동을 맛보면서 다양한 운동 도구를 샀지만, 결국 '팔굽혀 펴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긴 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도구들을 이용해 더 효과적이고 즐거운 운동을 해보자!

PRINCESS

딸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프린세스 메이커 3’

2003년의 어느 날로 기억한다.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열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CRT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만지작거릴 때였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왔고, 부모님이 준 선물이라며 CD 하나를 건넸다. 패키지 겔면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님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나는 딸을 키우는 아빠가 됐고, 딸을 성공적으로 결혼시키기 위해 수많은(!) 스케줄을 짜줘야 했다. 거짓말 같지만, 이 게임의 이름이 ‘프린세스 메이커 3’였다는 건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 2003년 PC 버전으로 발매된 ‘프린세스 메이커 3’. 2장의 CD 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린세스 메이커 3’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프린세스 메이커 2’의 후속작이다. 전작이 ‘미소녀(딸)를 육성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의 큰 틀을 제시했다면, 이 작품은 RPG적인 요소인 무사 수행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육성 요소를 강조한 게임으로 발매됐다.

▶ 게임 내 이벤트가 아르바이트 / 휴식 / 공부로 단순화되어 스탯을 관리하는 재미가 커졌다.

전작과는 달리 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재미가 더욱 커졌다. 돌발 이벤트로 부탁을 하거나, 미리 짜둔 스케줄 표 대신 바캉스를 가자고 권유하는 등,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거절하기 힘든 이벤트 요소가 다수 추가되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든다.



◀ 딸과 보내는 바캉스 역시 앨범 기능을 통해 다시 추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작의 명성이 워낙 높아 묻히는 부분도 있지만, ‘프린세스 메이커 3’는 무사 수행으로 대표되는 RPG적인 요소를 과감히 삭제하고 육성과 스탯 시뮬레이팅에 집중했다. 마치 야구단에 속한 야구 선수를 키우듯이, 유저는 적절한 일정 배치를 통해 딸을 육성하고, 돌발 이벤트에 대한 능숙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원하는 엔딩으로 진입할 수 있다.



▲ 여러 스탯의 수치가 엔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엔딩은 총 60개로 왕자와 결혼하는 전통의 진엔딩부터 도적이나 호스티스가 되는 배드엔딩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스탯과 함께 특정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가 엔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원하는 엔딩을 보고 싶다면 특정 NPC와의 대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흘러간 시대의 고전 게임들이 모두 그렇듯, ‘프린세스 메이커 3’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2021년 7월 현재 PC 패키지판은 절판된 지 오래고, 몇몇 마니아들을 통해서만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값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 영화에서 그랬듯 “우리는 늘 답을 찾을 것이다”.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의 전 시리즈를 STEAM에서 만날 수 있다.

‘프린세스 메이커3’는 ‘Princess Maker 3: Fairy Tales Come True’라는 이름으로 STEAM에서 3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오래된 게임을 스팀판으로 재출시한 만큼 버그도 많고 편의성도 부족하지만, 딸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 결혼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유저라면 자비롭게 용서가 가능한 수준이다.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그때 그 시절 ‘텍스트 육성 시뮬레이션’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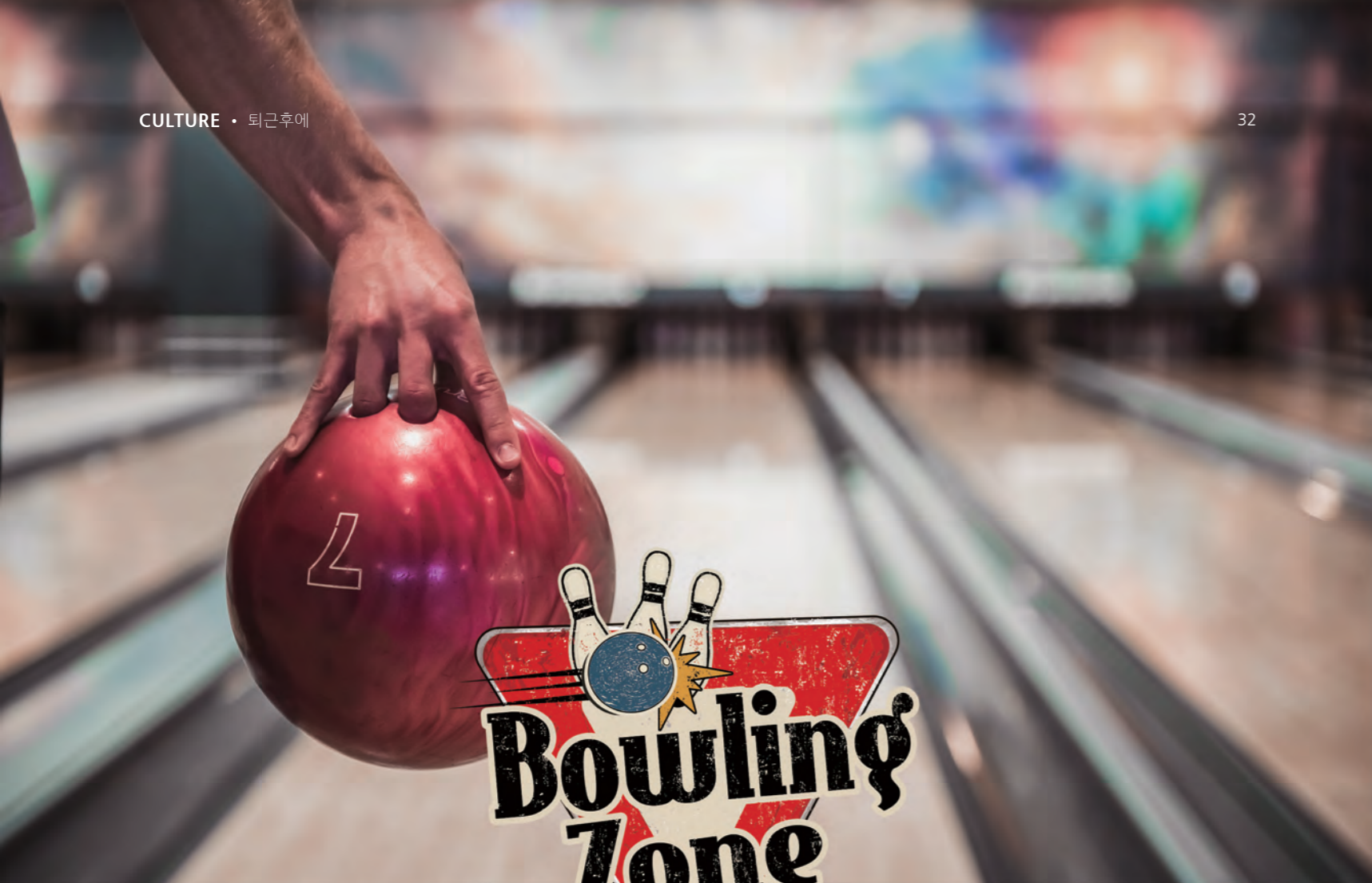
2020년과 2021년의 게임 업계를 관통하는 화두 중 하나는 “리메이크”였다. 블리자드사의 게임 ‘디아블로 2’가 ‘디아블로 2: 레저렉션’으로, ‘WOW’가 ‘WOW 클래식’으로, ‘파이널 판타지 7’이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로... 고전 게임이 가졌던 재미들을 현대적 트렌드로 재해석하는 작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는 2007년 나온 5편을 끝으로 정규 시리즈 발매가 14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바일이나 닌텐도 스위치용 이식작이 나온 적은 있지만, 6편을 기다리는 유저 입장에서는 아쉬울 따름이다. ‘프린세스 메이커’를 개발한 PD인 아카이 타카미는, 후속작을 기다리는 게이머들의 질문에 “엔젠가는 개발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유사한 장르의 작품으로는 비주얼 노벨인 ‘월희’가 ‘월희-A piece of blue glass moon’으로 리메이크되어 2021년 8월 발매 예정이다. 비록 게임이 지향하는 타겟층과 재미 요소는 다르지만, 텍스트 기반의 비주얼 노벨이라는 점에서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도 충분한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다 키운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왕자와 결혼하는 진엔딩 “프린세스”를 보고 나니,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훌가분하게 다음 딸을 육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모든 유저를 “딸 바보”로 만드는 ‘프린세스 메이커 3’, 울여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권하고 싶다.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취미생활 '볼링'을 소개합니다!

볼링장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예전엔 볼링장이라고 하면 레인만 깔린 삭막한 느낌의 각 잡고 볼링공을 굴려야 하는 공간이었지만, 요즘은 록이나 라운지 펍 등을 볼링장과 결합해 술과 음식을 먹으며 모임을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이제 볼링장은 친구들과 모이기에 좋고 연인과 데이트 코스로 가기에 좋은 문화공간이 되었다!



★ 오락기나 안마기, 포켓볼, 인형 뽑기 등 대기시간에 즐길 거리를 배치해둔 곳도 있다. 볼링은 비바람이 불어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실내 스포츠다.

STEP 1. 볼링 시작하기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던 볼링이라도 본격적인 취미 생활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하다. 그럴 때는 동호회를 추천한다. 취미생활은 공유해야 더 재미있고 조언을 받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볼링을 시작할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볼링공을 구매하자. 볼링장에 비치된 하우스볼과 구매한 마이볼은 전혀 다른 공이다. 하우스볼로 연습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하우스볼과 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다.



★ 볼링공 속에는 추가 들어 있어 똑바로 굴러도 드라이존에서 자연스럽게 휘어짐이 발생한다. (사진 출처- Popular Science)

STEP 2. 볼링공 선택하기

첫 마이볼을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은 볼링공은 소모성 장비라는 것이다. 프로들의 경우 볼링공 하나로 30게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며, 볼링을 취미로 즐기는 유저도 1년 이상 같은 공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즉, 처음 장만하는 공이 익숙해질 때쯤 아쉬운 이별(?)을 고하게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공을 고를 수는 없는 노릇. 초보자가 볼링공에 대해 알아보면 생각보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다. 그러니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 스펙이 있는 공을 고르는 것이 좋다.

▶ 스펙

하이퍼포먼스 > 어퍼 > 미드 > 엔트리 > 하드볼 순으로, 하이퍼포먼스 순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고 하드볼은 하우스볼과 동일하게 코어가 없는 공이다. 볼링공마다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미드 이상의 스펙이면 충분히 초반에 볼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스펙이 낮을수록 가격은 저렴해진다.

▶ 무게

남자는 15파운드(약 7kg), 여자는 12~13파운드(약 5kg)로 시작하면 좋다. 여성분들은 약 5kg의 볼링공을 드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가벼운 공으로 추천한다. 혹은 12~13파운드도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이볼은 하우스볼과 다르게 본인의 손에 맞게 지공을 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들 수 있다.

• Color	Black/Light Blue/Purple Solid
• Coverstock	ECA (Enhanced Composite Adhesion)
• Core	Kingpin Ultra Low RG
• Finish	500/1,500 Siaair Micro Pad
• RG	2.518**
• Differential	0.055**
• Lane Condition	Heavy Oil
• Performance	High-Performance Balls

★ 직접 알아보고 하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RG, diff, coverstock, factory finish 등등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외계어 투성이다!

STEP 3. 볼링공 구매하기

어떤 볼링공을 구매할지 결심했다면 이제 어디서 사야 할 지 고민을 하게 된다. 경험상 첫 공을 고를 때 이용할 만한 곳을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프로샵에서 판매하는 중고 볼

대부분 새공을 진열하지만 별도로 판매하는 중고볼이 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중고 볼은 프로들이 20~30게임 정도 사용한 공에 구멍을 막고 다시 판매하는 공이다. 중고 볼이지만 새 공과 별 차이가 없다. 구멍을 막은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처음 사용하는 공으로는 저렴하게 괜찮은 공을 사용할 수 있다. 덧붙여서 프로샵에서 구매한 후 지공(손에 맞게 공에 구멍을 뚫는 것)을 하게 되면, 볼링공을 굴리는 방법이나 자세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 중고판매 사이트

동호회 이벤트나 볼링장 이벤트 또는 공식 대회 같은 곳에서 상품으로 나오는 공들이 있다. 공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에게 맞는 공이 아니기에 종종 새 상품들이 주인을 찾아 올라오곤 한다.

▶ 인터넷 직구 사이트

장점은 새 공을 일반적인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배송 기간이 한 달 이상이고, 경식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취미생활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



★ 실제 기자가 사용하는 장비들

STEP 4. 기타 장비

볼링공이 가장 중요하지만, 볼링공을 멋지게 굴러다 보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 바로 볼링화, 타이밍 테이프, 그리고 가방이다.

▶ 볼링화

밑에는 슬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패드가 붙어 있는데, 볼링장에서 대여해주는 볼링화는 패드 마모가 심하거나 물에 젖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러면 슬라이딩을 하다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이왕지사 즐기기로 했다면 구매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비싼 볼링화를 구매할 필요는 없고 저렴한 가격대의 신발이면 충분하다.

▶ 타이밍 테이프

볼링은 엄지가 먼저 빠지고 중지와 약지로 회전력을 준다. 그래서 엄지가 원하는

타이밍에 잘 빠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볼링을 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빠져나올 때 피부의 마찰로 공이 부드럽게 빠져나오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엄지손가락이 볼링공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타이밍 테이프다. 소모품으로 한 통에 4~5천 원 정도, 40개가량 들어 있으니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길 권한다.

▶ **가방**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하다보면 가방이 간절해진다. 볼링공과 볼링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볼링용품들을 한 번에 보관하기에도 좋고 차량 트렁크나 볼링장 락커에 보관할 때도 편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퀴'다. 기자 또한 입문자 시절 가장 저렴한 원볼백 가방을 구매했다가 바퀴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을 들고 다닌, 눈물 나는 경험이 있다.

STEP 5. '실전' 볼링 즐기기



두 달 만에 방문한 여의도에 있는 볼링장이다. 기자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라운지 펍과 볼링장을 합친 곳이라서 피자, 햄버거, 샐러드 등의 먹거리와 음료도 팔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음료만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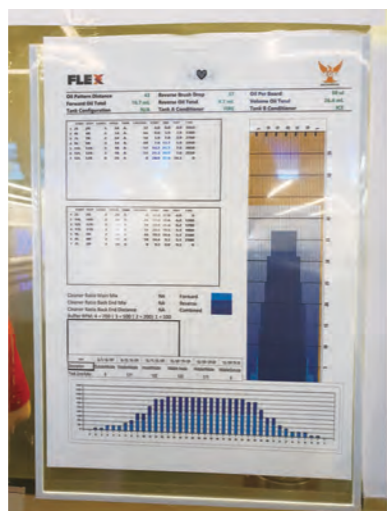


볼링장마다 볼링공 이벤트를 많이 한다. 특정 순위를 달성했을 때 볼링공을 주기도 하고 특정점

수 이상 달성시에 뽑기권을 주거나 게임 횟수마다 뽑기권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볼링공을 바꿔야 하거나 마음에 드는 볼링공이 있다면 도전해보도록 하자.



코로나19 때문인지 혼자 볼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혼자 볼링장을 찾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볼링 연습을 하기 위해서 혼자 오는 경우도 많다. 꾸준히 볼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하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볼링장을 가면 현재 레인 패턴을 표시해둔 알림표가 있다. 진한 파란색이 기름이 두껍게 발라져 있는 곳을 표시한 것인데, 사진을 보면 43피트까지만 기름이 발라져 있다. 정비 상태를 참고하고 자리로 돌아가 준비를 한다.

* 기름을 바르는 일은 정비 기계가 설정된 패턴

에 맞게 기름을 발라서 정비한다. 그래서 일부 볼링장의 경우는 추가 요금을 받고 원하는 패턴으로 다시 정비해주시기도 하니 참고하자.

마치며...

기자는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활동 중 볼링을 꼭 추천해주고 싶었다. 볼링은 남녀 모두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다. 재미있는 놀이인 동시에 즐거운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스포츠보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격차도 크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더더욱 없어서 어느 누구와 만나도 함께 게임을 즐기기가 좋기 때문이다. 금액적으로도 초반 장비 비용을 제외하면 볼링장을 이용하는 비용과 타이밍 테이프 비용 정도만 필요하기에 경제적 접근성도 수월하다.

무엇보다도 볼링공이 손끝에서 빠져나갈 때의 손맛과 핀을 맞췄을 때의 쾌감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린다. 한게임에 20분내외의 짧은 게임 시간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야외 활동에 비하면 부상 위험도 적고 쾰플끼리 즐기기도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즐길만한 취미생활을 찾고 있다면 볼링을 꼭 한번 시도해 보시라 추천해 드린다.

TIP. 공인구 확인 방법

실력이 늘어 공식 대회나 프로자격증 시험을 보고 싶다면 정식 유통된 공인구를 사용해야 한다. 내가 가진 공이 유통사를 거친 공인지 아닌지는 볼링공에 있는 코드를 대한볼링협회에서 확인하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자.

글. 김재원 기자 / kjwwon@



친구나 연인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걸작 협력 플레이 게임

어 웨이 아웃(A WAY OUT) VS 잇 테이크 투 (IT TAKES TWO)

30년 전이나 말하던 오락실의 두 마리 용은 '2인용' 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헤이즈라이트'는 지금껏 2인용 게임만을 개발해 게임 산업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인용 액션 플랫폼어 게임의 명가 '어 웨이 아웃(A Way Out)'과 '잇 테이크 투(It Takes Two)'를 소개한다.

A WAY OUT

★ 어 웨이 아웃 (A WAY OUT) ★

- * 출시일: 2018. 3. 23
- * 플랫폼: PC, PS4, XBOX ONE
- * 개발: Hazelight

‘어 웨이 아웃’은 예전 2013년 ‘브라더스: 어 테일 오브 투 선’을 개발한 개발자 ‘요제프 파레스’가 설립한 개발사 ‘헤이즈라이트’에서 출시한 신작 어드벤처 게임이다. 2인 플레이 게임이며 두 플레이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사정 있는 두남자의 말속 스토리

두 명의 죄수 레오와 빈센트가 탈옥하여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플레이어는 레오나 빈센트 중 한 명을 선택해 게임을 진행한다.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치밀한 두뇌 플레이와 협동, 그리고 두 사람에게 얽힌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이 게임의 핵심이다. 플랫폼은 PS4나 Xbox One 한 대로 2명이 함께 즐기는 로컬 협동 플레이, 멀리 떨어진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는 온라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한다. 1명만 게임을 구매해도 2명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화면 분할을 통해 짜임새 있는 협동 플레이어의 재미를 더하다

‘어 웨이 아웃’의 가장 큰 특징은 플레이어 두 사람이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점이다. 화면 분할은 로컬은 물론, 온라인 멀티플레이에서도 유지된다. 특정구간에서는 3분할 까지도 나뉘어진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파트너가 뭘 하는지 직접 볼 수 있다.

게임은 서로의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게임을 진행하며 두 플레이어의 시야를 화면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진다. 서로가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눌러야 하는 구간도 이러한 협동의 재미를 더욱 높였다.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플레이 도중에 ‘우정 파괴’ 가 될 염려도 없다

먼저 게임 내에서 상호 작용이 가능한 물체는 전부 노란 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노란 점만 따라가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다소 헛갈릴 수 있는 길 찾기도 나타날 때마다 카메라 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게임 오버가 되거나 통신 문제로 튕겼다고 하더라도, 세이브 포인트가 많아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이처럼 ‘어 웨이 아웃’은 협동하는 재미는 극대화하면서, 게임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였다. 플레이 타임도 약 5~6시간 정도라 주말에 친구나 연인과 함께 즐기기에 적당하다.



중간중간 만나는 미니게임

특정 목표 지점을 향해 다양한 장애물을 돌파하는 어드벤처 요소 외에도, 갖가지 미니 게임들이 스테이지마다 주어진다. 쫓아오는 경찰차를 피해 질주하는 레이싱, 총기를 들고 쏟아져 나오는 적을 처치하는 슈팅, 야구나 팔씨름 같은 미니게임까지 포함되어 있다. 친구와 같이 보드 게임을 하는가 하면 다트 게임, 농구 등 할거리가 무궁무진

하다. 이걸 그냥 지나쳐도 되고 아니면 친구와 같이 플레이하면서 점수 경쟁도 가능하여 서로 실력을 겨루는 것이 가능하다.

영화감독 출신 디렉터 손길 달은 연출

영화 감독 출신인 ‘요제프 파레스’ 디렉터가 총괄이라 그런지 게임 곳곳에 영화 같은 연출이 돋보인다. 게임 장면 구성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구성되어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된다.

긴장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러한 연출의 백미는 중반부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병원 탈출 챕터에서 맞볼 수 있다. ‘어 웨이 아웃’은 대부분 화면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유독 이 챕터는 빈센트와 레오가 각각 돌아가며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한다. 그리고 각 캐릭터로 시점이 옮겨가는 과정을 화면을 끊지 않고 통으로 보여준다. 두 주인공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탈출하는데도, 화면 끊어짐 없이 이어지며,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보는 듯하다. 여기에 롱테이크 기법의 진수로 꼽히는 영화 ‘올드보이’의 장도리 전투 장면을 오마주한 듯한 부분도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하지만 어색한 그들의 몸 동작

아쉬운 부분은 1:1 분할 화면에서의 어색하게 느껴지는 캐릭터 모션이다. 이벤트 씬을 제외하고, 뛰거나 걷기, 사물과 상호 작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션은 자연스럽게 하고 여기에는 부족했다. 어색한 모션의 연장선으로 슈팅 조작이 엉성하다.

탄창이 무한인 것도 조잡했고, 조준하고 발사하는 과정 자체의 모션과 조작감에서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게임의 우수한 장점들이 많아 이런 단점들이 몰입에 큰 방해가 되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it takes two

★ 잇 테이크 투 (IT TAKES TWO) ★

- * 출시일: 2021. 3. 26
- * 플랫폼: PC, PS4, PS5, XBOX, XSX
- * 개발: Hazelight

헤이즈라이트의 두 번째 작품인 ‘잇 테이크 투’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화면 분할을 통한 로컬/온라인 2인 협동 게임이다. 플레이 타임도 전작 대비 7시간 늘어난 14~15시간이다.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 스토리

‘잇 테이크 투’는 픽사 풍의 부드러운 3D 아트와 로맨틱+판타지+코미디의 밝은 분위기의 스토리로 진행된다. 남편 ‘코디’와 아내 ‘메이’는 부부 갈등 끝에 딸 로즈에게 이혼을 통보한다. 딸 로즈는 사랑에 대한 책 ‘하 킴’ 박사에게 부모님이 다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빈다. 딸의 소원으로 코디와 메이는 인형으로 변하고, 사랑의 책 하 킴 박사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사람으로 되돌아 갈수 있다고 통보한다. 부부는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 킴 박사의 미션을 협력 플레이로 하나하나 클리어 하며 그들의 관계가 왜 악화되었는지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족간 관심과 사랑, 시간 부족 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게임의 장르가 플랫폼머로 바뀌다

화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좌우 분할이다. 상황에 따라 화면의 비율이 달라지고 위, 아래로 바뀌는 것 또한 동일하다. 특정 장면에서는 화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연출을 보여준다.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에서 플랫폼머로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협동 퍼즐과 QTE액션과 FPS장르만 있었다면, ‘잇 테이크 투’에서는 달리고, 점프하고, 회피하는 완벽한 퍼즐 액션 플랫폼머가 되었다. 이런 게임으로는 PS시리즈의 색보이(Sack Boy)가 있는데, 색보이는 스테이지가 바뀌어도 비슷한 느낌의 퍼즐이 반복되었지만 ‘잇 테이크 투’는 스테이지 마다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보스 전, 슈팅, 격투, 탈출, 추격 액션 등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어 반복되는 퍼즐의 피로감을 줄였다.

마리오 시리즈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플랫폼머 장르는 밟고, 점프 등의 행위를 할 때 한 곳 차이로 죽거나 사는 요소와 조작감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게임은 마리오 시리즈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탄탄하다. 여기에 대시하거나 적에게 피격당했을 때 화면이 진동으로 흔들리는 등 세세한 디테일 요소가 가미되어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더군다나 게임을 플레이 하는 도중 죽게 되더라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가까운 리스폰 포인트에서 되살아 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몇 번이고 죽어가며 플레이 해도 함께하는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다.

다양한 장르가 녹아 든 테마파크 같은 게임

플랫폼머와 퍼즐 중심의 게임 사이에 양념처럼 들어간 다른 장르들 역시 구현해둔 포인트들이 상당히 잘 살아있다.



예를 들어, 마치 디아블로 시리즈 등이 생각나는 마법의 성 스테이지는 정통적 핵&슬래시 게임으로 진행된다. 게임 시점이 1인칭에서 쿼터 뷰(공중에서 캐릭터를 바라보는)로 전환되고, 코디는 ‘마법사’, 메이는 ‘전사’로 게임을 진행한다. 대충 흥내를 낸 정도가 아니라, 호쾌한 타격감과 액션이 잘 살아있어 아예 따로 게임으로 만들어도 될

듯한 고퀄리티를 보여준다. 게임이 종합 예술이라고 한다면 ‘잇 테이크 투’는 마치 게임들의 종합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패러디와 기믹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었다. 하나의 게임을 해도 마치 여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꼭 게임으로 만들어 둔 테마파크 같은 인상을 받았다.

양념 같은 다양한 커플 미니게임



각 스테이지 맵을 꼼꼼히 탐험해보면 소리와 함께 탬버린이 활성화되는 장소가 있는데 다양한 커플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당 맵 컨셉의 기믹들을 양념처럼 사용하여 레이싱, 줄타리기, 두더지잡기 등 서로 경쟁하는 컨셉의 미니게임이 다양하게 있다. 게임의 메인 미션뿐만 아니라 맵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숨어있는 미니게임을 찾아 플레이 해보는 소소한 재미도 있다.



돈이 아깝지 않은 게임: GOTY 예상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았지만 개인적으로는 GOTY를 수상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메타크리틱 전문가 평점 89점, 유저 점수 92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오픈 크리틱에서도 평론가 88점, 추천도 94%를 받았다. 사실 플랫폼머 게임은 상당히 마이너 하고 투자 대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르도 아니다. 하지만 신박한 방식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 하나의 게임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단순히 흥내만 내어 삽입한 것이 아니라 게임내 미니 게임 자체의 완성도가 매우 훌륭하다. 여기에 스토리텔링은 가족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맞게 잘 연출했다. 2021년 플레이 했던 게임 중 단연 최고로 이 작품은 무조건 구입해서 플레이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레스토랑 대신 '내' 스토랑 즐기기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서 편히 음식을 즐기기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외국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던 이태원의 자그마한 가게들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준비했다. 바로 '감바스 알 하이요다'.

★ 감바스 알 하이요란?

감바스 알 하이요(이하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와 마늘이라는 정직한 뜻을 가지고 있다. 기자의 최애 음식 중 하나인 이 감바스는 2만 원 중후반이라는 고가와 귀여운 양으로 놀라게 하지만, 꼭 하나 정도는 시키곤 한다.

사실 감바스는 요리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 방법도 어려울 것이 없는 간단한 요리다. 감바스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는 당신! 스페인 음식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풍성하고 맛있는 감바스 알 하이요를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부터 기자와 함께 따라해 보자!

★ 재료

해동한 각테일 새우 10~14미, 마늘(원하는 만큼 양껏), 올리브유, 소금과 후추, 페페론치노, 파슬리 가루, 파스타면 or 바게트빵

- * 각테일 새우: 냉동 새우를 뜻한다. 조리하면 사이즈가 줄어들어 슬픈 친구이기에 대~특대 사이즈를 추천한다.
- * 마늘: 최대한 통통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 * 소금 및 후추 외에도 추가로 좋아하는 향신료를 사용해도 좋다.
- * 파스타 면이나 바게트는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취향을 존중한다.



Step 1. 새우와 마늘 손질하기

새우는 물에 한 번 씻어 꼬리의 물총 부위를 제거한다.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름이 튀어 위험할 수 있다. 그 후 새우의 변이나 기타 물질들(?) 제거를 위해 새우의 꼬리와 등 부분 꼼꼼하게 칼로 긁어준다.

마늘은 사진처럼 끝을 제거하고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적당히 두툽한 사이즈로 썰어주면 된다.

- * 생새우를 사용할 경우 쓴맛 제거를 위해 이쑤시개 등을 이용해 내장을 제거해 줘야 한다.
- * 간혹 각테일 새우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거되어 있으니 한 마리 정도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Step 2. 새우 마리네이드 하기

손질한 새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소금과 후추(별도의 향신료가 있다면 그것까지!)를 뿌려 마리네이드 해주자.

- * 올리브유에 직접 소금을 넣어 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자는 새우 자체에 간이 배는 것을 좋아해 미리 마리네이드를 한다.

Step 3. 면 혹은 빵 준비하기 (없다면 넘어가도 무방하다.)

면 삶기

물에 굵은소금을 두 꼬집 정도 풀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약 9분간 삶아준다. 다 삶아지면 올리브유에 버무려 놓아둔다.

- * 올리브유에 버무려 놓아야 면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 * 바게트를 프라이팬에 한 번 구워도 되고 그냥 곁들여도 충분하다.



Step 4. 감바스 조리하기

먼저 프라이팬에 썰어둔 마늘이 충분히 잠길 만큼의 올리브유를 넣고 중불로 맞춰주자. 올리브유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준비해 두었던 마늘을 넣어주자. 이때 페페론치노도 함께 넣어주면 되는데, 매운 것을 좋아한다면 으깨서 넣는 것이 좋고, 매콤한 느낌만 나는 걸 좋아한다면 통으로 3~4개 정도만 넣어주면 된다.

그 후 다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면 불을 약불로 조절해 마늘이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새우를 넣고 다시 중불로 올려준다. 마늘이 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새우가 반쯤 익고 꼬리 색이 변하면 한번 뒤집어준다. 새우의 투명한 부분이 사라지면 전부 익었다는 뜻이니, 불을 끄고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완성!

- * 마늘이 타게 되면 쓴맛이 요리에 배일 수 있으니 불을 꼭 줄여주자.
- * 새우 투입 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면 기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Bonus!

남은 기름에 버무려 두었던 면을 넣고 소금을 조금 추가해 볶으면 오일 파스타가 된다. 감바스 후 마무리로 먹을 수 있어서 기자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마치며...

글로 옮겨 놓으니 꽤 많은 손이 가는 음식 같지만, 막상 도전해보면 무척 간단한 요리다. 실제로 만들어 보면 조리과정에 비해 맛있고 근사한 음식이란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에 '기름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아디오스(Adiós)!!

글. 강하연 기자 / zjahn7@



모니터 LED 램프, '크로스라이트 CL-2020'

밤에 등을 켜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모니터의 밝은 빛에 눈이 부시다 못해 아팠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암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장소에서 오래도록 모니터를 보다 보면 금방 눈이 피로해진다. 특히 야간에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럴 때 '모니터 LED 램프'는 조명을 통해 모니터를 바로 비춰 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램프 사용시

스마트 디밍 모니터 램프 사용시

✦ 모니터 LED 램프는 무엇인가?

모니터 LED 램프는 바형태의 조명등을 모니터 위에 직접 달아 직접 모니터로 빛을 비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모니터 램프, 모니터 LED 램프, 모니터 조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제품이 있다.

✦ 기자의 픽은 '크로스오버 CL-2020'

2~4만원대 제품 중 해당 제품은 신/구형 모니터(모니터 두께 1cm ~ 3.5cm) 모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었고, 다양한 각도조절이 가능하다. 모니터 이외의 제품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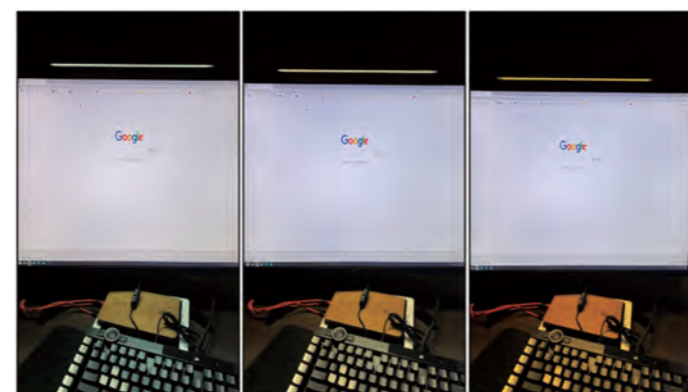
★ 모니터 LED 라이트_언박싱



★ 제품 사진

[이외 기능]

3가지 색온도와 10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무드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유선 리모컨이 있어 오히려 분실 위험에서 안전하다. 또한 어디서든 쉽게 쓸 수 있도록 USB-A 타입의 전원이 장착되어 있어서 편의성이 높다.



★ 모니터 LED 라이트 색차이 비교

[제품의 상세 스펙]

보상 종류	크로스오버 크로스라이트 CL-2020
소재	알루미늄, ABS
전원 및 출력	5V USB, 4W ~ 5W
조명 밝기/색	10단계/3가지(3000K, 4000K, 6500K)
LED 수명	35,000시간
무게	250g

✦ 실제 사용시 느끼는 장단점?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무엇보다도, 야간 사용시 눈에 피로감이 적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형광등을 켜고 이용할 때와는 다르게 빛이 모니터와 테이블 위만 비추기 때문에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는 느낌이었다. (단, 노트북 등 배젤이 얇은 제품은 설치 시 조금 시야 제약이 생길 수 있다.)



★ 모니터 LED 라이트 설치 후

심플한 디자인이라 모니터에 설치 시 크게 거슬리는 느낌이 없었고, 리모컨이 달려있어서 색상 온도와 밝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USB-A 타입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PC USB 포트나 USB 허브 등에 꼽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점 역시 편리하다.



★ 모니터 LED 라이트 홀더



★ 리모콘

또한, 모니터 뿐만 아니라 선반 등에 설치해서 야간 독서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바 형태의 각도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눈으로 직접 LED 불빛이 보여지는 점이 불편 했고, 본체와 전원선이 일체형이라 단선의 우려가 다소 있어 보인다.

장 점
① 야간 사용시 눈의 피로 감소
② 손쉬운 설치와 다양한 곳에 설치 가능
③ 3가지 색온도와 10단계의 밝기 조절을 유선 리모컨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
④ 다른 장점들을 다 제외해도 야간 사용시 감성(?)이 넘침

단 점
① 본체와 선이 일체형이라 분리 불가(단선 위험)
② 모니터의 크기가 커질 경우 범위가 커져 오히려 어둡게 느껴짐(32인치 기준 조금 작은 느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추하는 이유

이 모든 장/단점을 상회하는 의견으로는 야간 모니터만 비춰주는 감성은 정말 최고였다. 역시 감성 인테리어의 끝은 조명인 것 같다. 2~4만원대의 낮은 가격, 간편한 사용법, 그리고 생각 보다 높은 활용도 등으로 상당한 만족감을 준 제품이다.

사진 출처.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직접 촬영
글. 박수형 기자 / ilparacho@

게임빌·컴투스인들의
달콤한 인생
#룩빨 #내웃은어디에 #담벼락인생사진
#캐릭터는또하나의나자신입니다

지난 달콤한 인생 공모전 주제는 '방구석 패셔니스타'였습니다.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가운데 외출하고 싶어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우들이 자랑하는 내 사진, 동물 사진, 캐릭터 사진들을 만나보세요!



이경호 (QA실)

와우저로서 어느덧 16년 차! 와우록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오리지널 티어3 세트를 다 모아 봤습니다. 초보들은 잘 모르지만 고인물들이라면 대충 알아볼 수 있는 그 세트. 그리고 시계가 돌아가는 벨트도 일품이죠~!



김지인 (NOVA스튜디오)

방구석 패셔니스타로 '루디'를 소개합니다. 루디는 국내 육일돌 작가 피치카토님의 작품으로 몹시 어렵게 저와 함께하게 된 인형입니다. 외출이 쉽지 않은 요즘 루디에게 감췌한 옷을 사 입히며 대리만족을 느껴 봅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촬영 소품이 좀 더 갖춰지면 수영복을 입은 루디와 함께 야외 촬영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강다정 (Central실)

제주도 여행의 즐거운 추억입니다. 패션의 완성인 제주도 담벼락에서 아름다운 제주도를 입고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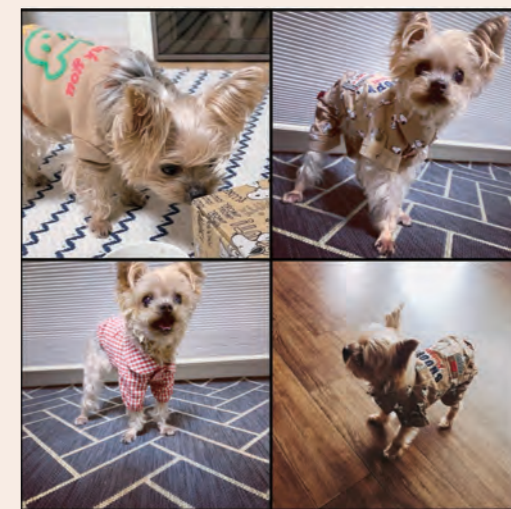
배진영 (SC사업실)

우리 집 댕댕이 모모랑 송이 생일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케이프 하나만 걸쳐도 너무나 이쁜 모모와 호피 드레سد도 한복도 찰떡인 우리 송이입니다♥ 어떤 옷도 다 소화하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강보민 (법무실)

저보다 옷이 더 많은 열세 살 반려견 '잎새'를 소개합니다. 이제 완전한 여름이라 봄에 입은 옷들은 함께 정리해보았어요. 이번 여름을 맞아 같이 시원하게 나뉘려 합니다! 모두 즐거운 여름 되세요~!



7월의 달콤한 인생 공모전 주제는 '휴가'입니다. 이제 본격 휴가철입니다. 다들 어떤 방법으로 휴가를 보내고 계실까요? 여행을 가는 분도,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서 보내는 분도, 책을 읽거나 밀린 드라마를 감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휴가를 택한 분도 계시겠죠? 어떤 휴가가 되었든 간에 재충전의 시간이 된 '여러분의 시간'을 '자랑'해 주세요~!

(당선자를 위한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QR CODE



기간: 2021년 7월 15일까지
응모방법: 사진 및 설명을 이름/소속/연락처와 함께 QR코드 또는 메일(GCNEWS@gamevilcom2us.com)로 보내주세요.



복면검왕

'복면검왕'은 매월 새로운 '갯갬'을 선정하여 감동과 여운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게임을 단계별로 추측해서 정답을 맞춰 보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01 1995년에 시리즈 세 번째로 출시한 게임입니다. 많은 인기를 얻어 2020년도에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출시했습니다.

02 싱글은 물론, 멀티 플레이가 가능한 ARPG 게임입니다. 당시 같은 장르에서는 드물게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점이 인기의 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리메이크작에서는 탭부에서 TPS 형식으로 바뀌어서 멀티 플레이가 불가능해진 점이 아쉽네요.

03 시리즈를 이어서 링 커맨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RPG의 필수 요소인 아이템이나 마법을 맥선 게임에서 빠르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채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리메이크작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04 6명의 주인공과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선택한 주인공과 동료들에 따라서 게임의 스토리가 달라지며, 한 캐릭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다양하므로 다회차 플레이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05 개성 넘치는 NPC 및 탈것이 존재합니다. 상점에서 춤을 추는 아랍풍 상인 NPC와 맵을 이동하기 위한 거북이, 드래곤, 대포(!)가 시리즈를 이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간 : 2021년 7월 15일까지

메일 주소 : GCNEWS@gamevilcom2us.com(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6월호 정답 : Fall Guys / 6월호 당첨자 : 백*윤(5864), 강*성(0828), 황*영(7377)

글. 우상욱 기자 / woosnt@

GO~ GO~ GO~ 알레 알레 알레~! 방구석 축덕들 모여라~! '피파 온라인' 용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고고고 알레 알레 알레'는 흔한 축구 응원가이다. 코로나 시국 방구석 축덕들의 탈출구, '피파 온라인3'를 즐기기 위한 용어를 알아보자.

* 선수 역할 이해를 위한 축구 관련 용어

- 포메이션:** 11명의 선수 포지셔닝, 선수 배치를 말하며 대표 포메이션은 4-4-2
- 포스트 플레이:** 골대 앞에서 장신의 선수가 크로스나 패스를 골로 연결하거나 2선 침투 선수에게 연결하여 골을 넣게 하는 플레이
- 파 포스트:** 공이 있는 쪽에서 먼 골대
- 니어 포스트:** 공이 있는 쪽에서 가까운 골대
- 탈압박:**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플레이, 압박 이겨내고 탈출하는 능력
- 게겐프레싱:** 공격수부터 수비까지 공간을 좁히고 압박을 가하는 전술로 압박을 통해 공을 뺏은 위치부터 공격하는 형태
- 티키타카:**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로, 짧고 많은 패스를 통해 상대편의 움직임을 늘려 체력을 소모시키고 공간을 창출하는 공격 형태
- 타킷 스트라이커:** 뛰어난 피지컬로 타이튼한 상대방의 압박 속에서도 제공권, 공중 볼경합 및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동료에게 골 찬스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수행
- 컴플리트 포워드:** 흔히 완성형 공격수 혹은 육각형 공격수를 지칭하며, 모든 능력이 뛰어나 어떤 공격 포지션에 배치해도 플레이에 능한 공격수
- 새드 스트라이커:** 처진 공격수 or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공을 연결하거나 사이드로 연결 후 크로스 유도하여 골을 넣는 공격수
- 포쳐:** 밀렵꾼이라는 의미로 공을 잡지 않고 있을 때 움직임도 둔보이며, 뛰어난 위치 선정을 통해 상대 수비가 대처하기 전 공을 넣는 공격수
- 트레라디스타:** 3/4라는 이탈리아 용어로 세리아 축구에서 많이 보였던 스타일 유형의 미들인 듯 공격수인 듯 1.5선의 선수 전방 공격수에게 볼 배급을 하며, 때론 직접 슈팅을 마무리하는 공격수
- 박스 투 박스:** 상대 페널티 라인 바깥부터 아군의 페널티 라인 바깥까지 활동하는 전형적인 미드필더
- 스위퍼:** 축구에서 공격에도 가담하기도 하는 최후방 중앙 수비수. 청소기라는 의미로 후방에서 수비를 조율하며, 수비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비수
- 스토퍼:** 상대를 멈추게 한다는 의미로 몸싸움, 태클, 1:1 수비, 대인 전담 마크 등의 역할을 가지는 수비수로 상대방의 공격수를 거칠게 압박해 수비하는 수비수

* 피파 온라인 관련 용어

- EP:** 피파 온라인의 게임 재화
- 미페:** 미니페이스온. 선수카드에 있는 선수 사진
- 카드강:** 재화 소모 혹은 결제를 통한 팩을 구매하여, 선수 카드를 획득하는 방법
- 메타:** 대세적인 게임 운영 방법
- 키컨:** 키퍼 컨트롤 설정 'key'를 이용한 키퍼 위치 조정을 키퍼 컨트롤이라 함
- 라부:** 라이브부스터. 특정 시즌 선수의 활약에 따라 라이브 부스터를 부여받는데, 이를 획득한 선수는 능력치의 변화가 생김
- 치즈:** 엘로 카드, 주심이 주는 경고 카드를 의미하며, 치즈 한장이라고 표현

글. 장준석 기자 / dhwlaks@

MLB PLAYERS
TM/© 2021 MLB
OFFICIALLY LICENSED PRODUCT - MLB PLAYERS, INC.



MLB 9인니스 21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



캠투스프로야구 2021

아르카나 태틱스 RE:VOLVERS



그림 . 백지윤 기자 jybaek@

🎁 6월호 당첨자 발표 백종만, 정유진B 님 축하드립니다~!

백종만 (GCP 플랫폼클라이언트팀)



정유진B (SUMMONER스튜디오)



WE WIT

당신의 무한한 상상력을 기대합니다.
말풍선에 위트있는 멘트를 넣어
사진 촬영 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WEWIT 삽화는 사우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멋진 솜씨를 뽐낼 금손 사우들께서는 언제든지
편집부에 문의 주세요~!
(이 코너는 임직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 2021년 7월 15일까지
메일 : gcnews@gamevilcom2us.com
회사, 소속, 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세요

Congrats!

Welcome Welcome

글로벌 No. 1 모바일게임사를 위해 함께 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 입사를 축하합니다!



게임빌

게임사업부문 이교환 차장, 게임사업부문 조정훈2 차장, 게임제작본부 정민환 과장,
게임제작본부 주상현 사우, 게임사업부문 강수진 대리, 게임제작본부 민혜인 사우,
게임제작본부 김희경2 차장, 게임제작본부 오재민 차장, 게임제작본부 광상진 사우,
게임제작본부 권오윤 사우, 게임제작본부 박진호 사우, 게임제작본부 송문섭 사우,
게임제작본부 임서연 사우

컴투스

IP전략실 정다인 과장, SC사업본부 유횠훈 대리, SC사업본부 박천 대리,
SC사업본부 문선우 사우, SC사업본부 안정진 대리, SC사업본부 하홍일 과장,
SC사업본부 유아영 과장, SR사업본부 나한나 사우, SR사업본부 강규용 과장,
가치경영본부 김태경 과장, 가치경영본부 김연우 과장, 가치경영본부 안세환 대리,
가치경영본부 김건형 과장, 개발운영센터 원성민 선임, 개발운영센터 표재원 사우,
개발운영센터 윤다영 사우, 개발운영센터 박승호 책임, 경영전략부문 유지만 과장,
마케팅&컨텐츠센터 이원정 과장, 사업운영센터 고한설 사우, 사업운영센터 송현주 대리,
사업운영센터 외라핀 위라팻 사우, 사업운영센터 미하엘 아들러 사우, 사업운영센터 이시은 사우,
사업운영센터 아나스타시아 사우, 제작1본부 박소현 선임, 제작1본부 최지호 사우, 제작1본부 조은에 선임,
제작4본부 이정민 차석, 제작4본부 현태우 사우, 제작4본부 김세운 책임,
제작5본부 강중석 책임

게임빌컴투스플랫폼

플랫폼1실 정하윤 선임, 테크AM실 서동균 차장



Gamevil Com2us Europe

Ugur Basakan, Anna Luisa Baumann

Gamevil Com2us Thailand

Wanwisa Deeprasirt, Witida Thanaphanichkul

Gamevil Com2us Taiwan

이욱기, 지시함



TWO IN MEDIA 170호 2021년 7월호



게임빌컴투스플랫폼 '하이브', 외부 게임 회사에 최초 개방, 사업 확장 선언

게임빌컴투스플랫폼의 글로벌 게임 서비스 플랫폼 '하이브(Hive)'를 외부 게임사에 최초로 개방하며 사업 확장에 나선다. '하이브'는 로그인 인증, 결제, 서비스 지표 분석, 고객 관리 등을 포함한 모바일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글로벌 게임 서비스 운영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과 전 세계 80%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주요 17개 언어를 지원하여 글로벌 출시를 준비하는 게임사의 개발 비용과 운영 부담을 경감시킨다. 하이브는 중견 게임사 벨로프의 '이카루스M', '용비불패M' 등 6개 게임, 라온 누릭소프트의 신작 '인피니티 가디언스', 우가차카의 '라이어 게임' 등 총 8개 모바일게임에 하이브 플랫폼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7주년 '서머너즈 워', 7가지 경이로운 기록들 공개

컴투스의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글로벌 서비스 7주년을 기념해 경이로운 기록 7가지를 인포그래픽에 담았다. '서머너즈 워'는 2014년 6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해 1억 2,70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 7년 간 매일 평균 100만 명의 유저가 즐기는 글로벌 명작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최초로 단일 게임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으며, 하루 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 세계 90개국의 앱 마켓에서 게임 매출 순위 1위 달성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모바일 게임 최초로 개최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기존 세계관을 발전시켜 100년 이상의 스토리를 가진 '서머너즈 워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컴투스는 글로벌 전역에서 사랑받아온 '서머너즈 워' IP가 앞으로도 무한히 확장하며 게임을 넘어 웹툰, 코믹스, 웹소설,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로 뻗어 나가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1 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 글로벌 출시 300일 기념 페스티벌

'2021 게임빌프로야구 슈퍼스타즈(이하 2021 캠프야)'가 글로벌 출시 300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구단 마스터리'는 거미줄처럼 얽힌 마스터리를 획득해 선수들의 다양한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구단 마스터리를 통해 획득한 능력치는 '실시간 대전' 및 주요 경기 모드 진입 시 확인할 수 있다. 마스터리 습득에 필요한 신규 아이템 '마스터리 북'은 나만의 선수 육성 보상과 이벤트 미션, 아이템 큐브와 주요 코인 상점 등을 통해 입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21 캠프야'는 편의성 개선 및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며 유저들의 호응을 얻었다.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첫 어둠 속성 전설 캐릭터 '새도 킹 펜' 추가!

컴투스가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이하 스카이랜더스)'의 새로운 전설 선수 공개와 함께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스카이랜더스'는 '액티비전(Activision)'의 IP를 모바일로 옮겨와 새롭게 탄생한 팀 던져 RPG로,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수집, 육성하며 자신만의 전략적 조합을 통한 다양한 팀 덱을 구성해 전투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전설 선수 '새도 킹 펜'은 빛-어둠 소환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추가된 어둠 속성 캐릭터로 펜권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킹 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상에 특화된 스킬을 사용해 상대방의 공격 흐름을 끊어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새로운 수집 콘텐츠 '인연 시스템'은 각각의 캐릭터마다 최대 5명의 '인연' 스카이랜더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성장시킬 경우 보상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특히 하나의 캐릭터에 여러 명의 인연이 지정되어 있는 만큼 캐릭터 수집 및 육성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EPILOGUE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들이 기자로 참여했습니다.



김명진 기자 8-11p Cover Story THE QUEEN'S GAMEVIL, NS스튜디오 '권나경' 사우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기회가 생겨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경 기자 12-13p Game Focus 'MLB 퍼펙트 이닝 2021' 올★스타전이 돌아왔다!
게임 개발자로서 일해오다가 처음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니 독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개발팀, 사업팀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해온 게임들에 좋은 기사 작성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인원 기자 15p Marketing Story 이번에는 삼각김밥이다! '컴프야' X '이마트24'의 유쾌한 만남
최근에 입사해 컴투스 문화에 대해 익히고 있는 와중에 소중한 기회로 사보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사보 외에도 마케팅&콘텐츠 센터에서는 다방면으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봉정 기자 16-17p Special 게임빌 * 컴투스 조직문화 LEVEL-UP 프로젝트 1탄! 'Cooking'의 맛있는 변신
두번이나 사보에 사내식당을 주제로 한 내용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언제나 읽을거리 가득한 '게임빌컴투스뉴스'가 되길 바라며 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연 GC플레이어 18-19p Special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는 '점자책 만들기' 봉사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게임빌컴투스뉴스'에 제 글을 실을 수 있어서 더욱 영광스러운 기회였어요. GC플레이어 5기 짬!



조성빈 기자 24-25p Special 서울과 경기도 시민을 위한 '알쓸산정'
어태까지는 그저 흥미 있는 부분만 골라서 내용만 읽었는데, 직접 써보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사를 작성해 주신 사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_)



박소명 기자 26-27p Special 고대 문명의 나라 '멕시코'에서의 삶, 그리고 경험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어떻게 추릴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어떻게든 추려냈지만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보 참여로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가람 기자 28-29p 나도혼자산다! 운동하면 오래 산다고? 운동에 친심인 '헬린이'의 일기
코로나 시대에 헬스장 가기가 힘든데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재미있게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으면 좋겠네요!



김봉기 기자 30-31p 고전탐독 월보보 만들기 프로젝트! '프린세스 메이커 3'
고전 게임 리뷰 기사를 쓰며 오랜만에 어린 시절 추억의 게임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멋진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재원 기자 32-34p 퇴근후에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취미생활, '볼링'을 소개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자 체험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쓴 기사로 취미생활을 찾으시는 분들과 볼링을 취미로 즐기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양소영 기자 35-37p 게임vs게임 2인용 액션 어드벤처 게임 'It takes two vs 'A way out'
기자활동을 통해 직접 소장하고 싶었던 게임도 얻고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를 써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좀 더 분석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글재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신 사보팀에 감사드립니다.



강하연 기자 38-39p 맛세상 레스토랑 대신 내스토랑 즐기기! '김버스알 이하오'
지금까지 리포트를 제외하고 글을 쓸 일이 거의 없어 첫 마디를 떼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적고 보니 아쉽고, 아쉽지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새삼 작가분들이 존경스러워졌고, 덕분에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형 기자 40-41p Monthly Item 틈틈이 야간 컴퓨터 작업의 도우미! 모니터 LED 램프
이전과 다르게 기자라는 이름으로 제품도 리뷰 해보고 글도 써보고 하면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경험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욱 기자 44p 복면경왕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얻기 위해 해당 게임을 다시 했습니다. 과거에 밤낮으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서 잠시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준석 기자 45p 게임백과사전 방구석 축덕들 모여라! '피파 온라인' 용어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게임 관련 용어를 소개 드릴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7월 게임빌컴투스뉴스 많이 읽어주세요~



백지윤 기자 49p WEWIT
WEWIT 코너를 보며 재치 있는 상황 연출에 늘 감탄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생각 못 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모두 즐거운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Pulitzer Prize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임직원이 기사단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집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한 달 간 열심히 취재하고 즐겁게 노력해주신 기사단을 대상으로 가장 애써주시고 의미 있는 기사를 작성해 주신 기자 두 분을 선정해 풀리처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2021년 6월호 풀리처상 수상자들을 공개합니다.



심정연 기자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뽑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상이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네요. 주변에 말로 드라마 추천을 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소개문을 쓴 건 처음이라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보 작성을 핑계로 멋있게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 벌써 반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오는데요. 어서 코로나가 사라져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원한 맥주를 편하게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경완 기자

제 기사를 이렇게 좋은 평가를 주셨다니 매우 감사드립니다.

게임 마니아가 자기가 하는 게임을 더 많은 사우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쓴 기사를 너무나도 높은 평가를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자랑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다른 사우분들도 용기를 내어 사보에 추천해 주셨으면 싶네요.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게임을 통해 시야의 지평을 넓힌다면,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6월 날씨는 정말 뒤죽박죽이었죠. 비가 오는가 하면 갱하니 맑아 30도 넘게 오르질 않나, 덥다 싶어서 창문을 열고 갔더니 밤새 비가 와서 출지를 않나...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는 게임과 만나서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더 좋은 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 하늘은 내내 맑기를!!



게임빌컴투스뉴스 'GC 상식 퀴즈'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잘 읽어보고 계신가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퀴즈를 풀고 QR코드를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https://forms.gle/HzQe3ut2yjFtHo8K8>
 기간: 2021년 7월 15일까지



- 'MLB 퍼펙트이닝 2021' 올스타전 업데이트의 내용이 아닌 것은?
 ❶ 아너스 클럽 선수카드 출시 ❷ 드래프트 비어 이벤트 ❸ 커스텀 패키지 출시
- 컴투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의 이름은?
 ❶ OOTP STOP ❷ OOTP GO ❸ OOTP BACK
- 게임빌 컴투스의 임직원 참여 정기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❶ 비대면 봉사활동이다. ❷ 임직원의 가족들은 참여할 수 없다. ❸ 소셜코어에서 개발한 휴대용 점자인쇄기 '배볼로기'를 이용했다.
-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의 슬로건과 맞게 연결된 것은?
 ❶ 1단가라 ❷ 2됐다가저했다가 ❸ 3초동안 ❹ 4고8고

정답자 공개!

6월호 정답 : ❶ 리얼한 3D 그래픽 ❷ 카운터 시스템 ❸ '이길 만두 하지' 출시 ❹ 서류는 방문 접수해야 함
 6월호 당첨자 : 이*연(4486), 김*영(5660), 정*윤(8801)



MOBILE BASEBALL GAME SINCE 2002

게임빌

프로야구

2021 SEASON

WS



PERFECT INNING 2021



MLB PLAYERS

GAMEVIL

GONG GAMES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 © 2017-2021 GAMEVIL COM2US USA, INC. GAMEVIL AND THE GAMEVIL LOGO ARE TRADEMARKS OF GAMEVIL, INC. GONGGAMES AND GONGGAMES LOGO ARE TRADEMARKS OF GONGGAMES CORP.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LUMNI ASSOCIATION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LUMNI ASSOCIATION AND MAJOR LEAGUE ALUMNI MARKETING, INC.